



“분위기 즐기러”... 글로벌 ‘아미’ 서울로 집결

BTS 컴백 공연 현장
무대 설치 막바지 구슬땀
광화문 보이는 구조 눈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연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젠 아시아 하면 한국이죠. 방탄소년단의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 처음 한국에 왔어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오는 21일 오후 8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컴백 공연을 이틀 앞두고 현장의 공기는 이들 대표곡 ‘봄날’처럼 따스한 기운이 완연했다.

광화문 공연 티켓을 손에 넣은 ‘아미’(팬덤명)도, 그렇지 못한 이들도 방탄소년단의 컴백만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아미’들은 온몸에 가방, 인형, 휴대전화 스퀘어 등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라색 아이টে็ม으로 휘감고 들뜬 얼굴이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복귀를 두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보는 것은 물론, 멤버들의 고국인 한국의 봄

을 만끽하고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온 줄리 씨는 “힘들게 광화문 공연 티켓을 구한 만큼, 31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라며 “미국에 돌아가서도 라스베이거스와 뉴저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를 관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명 ‘아리랑’(ARIRANG)에 관해 묻자 “이미 한국의 아리랑을 알고 있다. 방

탄소년단이 과거 여러 차례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와 함께 한국을 찾은 체리 씨 역시 “방탄소년단이 아니었다면 한국에 이토록 큰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아시아 여행이라고 하면 일본을 먼저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방탄소년단 덕분에 K-드라마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은 컴백 공연을 위한 막바지 무대 설치 작업이 한

창이었다. 무대 뒤 LED 전광판 사이로 보이는 광화문과 경복궁이 인상적이었다. 작업자들은 관람석과 간이 화장실 등의 설치를 대부분 마쳤다.

무대 근처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아미방’(공식 응원봉)을 들고서 신기해하는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봤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왔다는 팬들은 “약 4년만의 완전체 컴백이어서 무척 신난다”며 밝은 표정이었다. 공연 예매엔 성공하지 못했지만 컴백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즐기려고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탄 팬들도 많았다.

전날 미국에서 온 앤 시어도어 씨는 “방탄소년단을 2016년 하반기부터 좋아했는데, 티켓은 없지만 분위기를 즐기러 왔다”며 “내일 나올 새 앨범도 벌써 여러 장 구매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20일 신보 ‘아리랑’을 발매하고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컴백 쇼를 연다. 이 공연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케데헌’, 전 세계 팬 만나나 “넷플릭스, 내년 월드투어 논의 진행”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속 한 장면처럼 전 세계 팬들이 공연장에서 헌트릭스의 히트곡을 ‘폐창’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넷플릭스가 내년 ‘케데헌’ 월드 투어(세계 순회 공연)를 계획 중이며 콘서트 기획사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1만~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 공연장을 빌려 ‘케데헌’ 공연을 여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은 미정으로, 극 중 걸 그룹 헌트릭스의 보컬을 맡았던 이

재·오드리 누나·레이 아미를 투어에 참가시키는 방안, 버추얼(가상) 공연자를 내세우는 방안 등이 두루 검토되고 있다.

다만, 모든 투어 일정에 이재·오드리 누나·레이 아미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케데헌’은 K-팝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노래의 힘으로 악령들을 막고 세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으로, 넷플릭스 최고 흥행작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누적 시청 수는 5억 회를 넘겼으며,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인 ‘골든’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7주 연속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발사 박보검·연극반 교사 김태리

배우들의 ‘무공해 예능’

오디션, 서바이벌, 연애 리얼리티, 부부 상담 등 강도 높은 매운맛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는 방송계에서 배우들의 예능 도전이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박보검은 전북 무주의 앞섬마을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김태리는 폐교 위기에 놓인 경북 문경의 초등학교에서 연극반을 이끌며 힐링을 선사한다. 예능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두 배우는 자극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도파민 콘텐츠’ 대신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무공해 예능’을 택했다.

박보검의 tvN ‘보검 매직컬’은 이용사 국가 자격증이 있는 박보검과 절친한 배우 이상이, 광동연이

머리와 마음을 함께 다듬어주는 특별한 헤어숍을 운영하는 모습을 담았다.

김태리는 tvN ‘방과후 테리쌤’에서 전교생이 단 18명에 불과한 옹흥초등학교에서 연극이 처음인 아이들과 연극반을 꾸리며 울고 웃는다.

이들의 도전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살리기와도 맞닿아 있다.

박보검과 이상이, 광동연이 앞섬마을 주민들과 교감하던 공간은 촬영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월 ‘보검 매직컬’ 첫 방송 이후 이들이 머물렀던 공간을 보기 위해 평일에는



tvN ‘보검 매직컬’ 포스터. tvN 제공

하루 평균 200여 명, 주말에는 5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촬영지를 찾고 있다.

김태리의 온기가 남아 있는 옹흥초등학교도 변화를 맞았다. 지난해 ‘방과후 테리쌤’ 촬영을 마친 옹흥초등학교는 올해 3월 시작된 새 학



tvN ‘방과후 테리쌤’ 포스터. tvN 제공

기부터 연극반을 개설했다. 문경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 외부 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웠지만, ‘방과후 테리쌤’ 제작진의 소개로 연극반 교사가 오기로 하면서 개교 이래 처음 개설된 연극반 활동이 이어지게 됐다. 연합뉴스

CGV,故안성기 추모전

CGV가 국민 배우 고(故) 안성기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안성기 배우 추모전’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CGV압구정 아트하우스 아트(ART)1관 ‘안성기관’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성기가 아역으로 출연한 영화 ‘하녀’(1960)를 비롯해 ‘바람불어 좋은 날’(1980), ‘고래사냥’(1984), ‘칠수와 만수’(1988),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 ‘라디오스타’(2006), ‘부러진 화살’(2012), ‘카시오페아’(2022) 등 연대별 대표작 8편을 상영한다.

CGV는 이번 추모전이 ‘안성기관’ 개관 10주년을 맞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병’ 시즌4 하반기 방송

현실적인 군 생활을 담아내 웃음을 자아낸 드라마 ‘신병’이 시즌4로 돌아온다.

ENA는 새 월화드라마 ‘신병4: 사보타주’를 올 하반기 중 ENA와 지니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신병’은 온갖 인간 군상이 모여 크고 작은 사교가 벌어지는 현실적인 군대 이야기를 그린 밀리터리 코미디다. 시즌4에서는 상병 진급과 동시에 끝없는 고민에 빠진 박민석(김민호 분)의 병영라이프 후반전이 그려진다. 상병만 달면 끝일 줄 알았던 군 생활에 미스터리한 신병과 대대장이 등판하면서 격동의 2막이 시작된다. 연합뉴스

우 승
CONGRATULATIONS
KLPGA 리주란 챔피언십

임진영 프로(대방건설)
부: 임승찬(현대해상 동명대리점, 애월읍 하가리) 모: 김정림(정관장 노형점, 안덕면 창천리)

KLPGA 리주란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일동

우 승
CONGRATULATIONS
KLPGA 리주란 챔피언십

임진영 프로(대방건설)
부: 임승찬(현대해상 동명대리점, 애월읍 하가리) 모: 김정림(정관장 노형점, 안덕면 창천리)

“야호” 임진영 프로
26년 개막전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고모할머니 임신자 외 강동현, 강영희

취 임
CONGRATULATION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양임선·소은 홍정임·정범 김지남·경남 이지훈 외 사촌동생 일동

취 임
CONGRATULATION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10대 이사장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10대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산송씨 정가공파 서귀포문중회 친족일동